

<2022년 1월 11일 하나님의 날 말씀>

성령과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라

<말씀 시작>

오늘은 우리 은하수들, 은하수 있죠. 유초등부, 초등학생들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은하수라고 불렀어요. 우리 섭리사는 은하수 하면 유치원생들만 생각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까지입니다. 상당히 인원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섭리사 은하수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무대가 생각보다 큼니다. 세계 전체의 은하수들도 포함됩니다. 한국만 해도 은하수가 2600명이 됩니다. 관리하는 교사들까지 합하면 3000명이 됩니다. 세계 전체하면 엄청나게 더 많죠. 섭리 전체가 영광 돌리는 무대입니다.

은하수를 왜 쪼개는가 하니 수도 많지만 어른들 사이에 쏘사리 끼는 거 같아 따로 쪼갰습니다. 은하수는 잔디밭, 분별을 해줘서 놀아요. 은하수 하면 그냥 아기들, 기어 다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들 한창 성장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초등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들이 1600명 정도로 많습니다.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교사보다 더 바쁩니다. 쫓아가야 하고 사고날까봐 쫓아다니고 교사들이 굉장히 치타같이 빨라야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관리하고 같이 합니다. 공부도 많이 가르치고 방과후학교 있어서 학교에서 하죠. 모든 교회가 결방살이였는데 은하수가 21년 됐습니다. 저와 같이 모두 건물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치원들은 사고가 많이 나고 혼내고

하는게 섭리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보고가 안 들어오고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동생 같이 철저히 잘 하고 있습니다. 은하수들은 대화를 하면서 해야 합니다. 상당히 준비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역시 성령께서 하나씩 하나씩 깨우쳐주면서 말할 것입니다. 은하수들은 대화를 하면서 해야 해요. 일반 사람은 못 하는데 은하수들은 해줄게요. 대화하면서 할게요. 은하수들은 지금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정도 운동하는 사람들 어른들은 아주 큰일나죠. 끝날 때까지 손을 흔들 거예요. 최고 반응이 좋은 것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알잖아요. 선생님도 은하수 학교 방과후 학교도 가봤거든요 반응이 너무 좋아서 나도 같이 빠지더라고요. 아주 은하수들하면 은하수가 좀 멀잖아. 실제 은하수들이 멀리 있죠. 어른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은하수들이 작게 보이죠. 근데 바짝 가보면 커요. 은하수까지 가면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발달 됐다고 하는데 어린아이들 가까이 가면 아주 고도의 발달된 사람이라고 봅니다. 어른들은 어린아이들 관심을 잘 안 가지는데 은하수에 가까이 가면 과학기술이 엄청 발달 했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미치기 힘든 정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도 아기들 상당히 크게 봤어요. 아기들은 속을 썩이지 않습니다. 속을 썩인다고 하는 건 어른들이 관이 잘못 들어간 거예요. 속 썩이는 것이 아니라 성장 과정 중의 프로그램입니다. 알겠죠? 그런 것은 속 썩인다고 하는데 잘못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하수를 잘못 봤어요. 은하수가 가장 죄를 안 짓습니다. 이성죄도 없고 강간죄도 없고 도둑질도 잘 안하고 부모 공경 잘하고 말 잘 듣고 어떤 우상 숭배 이런 것도 안 하고 유치원생들이 살인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범죄가 거의 없죠. 그러니 아주 죄가 없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어머니니까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가장 침단을 달릴 수 있는 자들이 은하수들입니다. 고등학생 정도 되면

컨트롤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은하수가 속 썩었다. 선생님을 힘들게 했다는 것은 사전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섭리 사전에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유치원생들 잘 들었어요? 유치원생들 때문에 43년 동안 속 썩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고등학생 때부터 속 썩이는 사건들이 많이 옵니다. 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아침에 영계, 육계 훑어 보니까 유치원생들이 선생 속 썩인 적이 없습니다. 고등부, 캠퍼스, 청년부 그 위로는 선생을 속 썩인 것이 많습니다. 은하수들 존경스럽고 역시 높은 자리에 있구나. 은하수가 알고 보면 제일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은하수 연구를 못하고 있거든. 은하수 어떻게 존재하는지는 선생님만 알죠. 유치원생은 투시를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은하수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어린아이들 투시를 못 하니까 이름을 은하수라고 지은 거예요. 은하수들은 상당히 변화무쌍합니다. 선생님도 은하수 출신을 거쳤어요. 참으로 중요한 때입니다. 누구나 은하수를 보면 작다. 은하수들 작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귀엽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손이 가져요. 그리고 마음이 가지고 약하다고 해서 도와주고 싶고 그래요. 손도 잡아주고 싶고, 이끌어주고 싶고. 그런 단계의 세계에 와 있습니다. 이들도 모여 있는데 누가 영광 돌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기 모여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이게 언제 커서 속을 안 썩이지 하는 생각은 지금쯤 가지치기를 해야하지 않나. 물론 가정국들이 잘 하긴 합니다만 말씀을 듣고 가정 교사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 귀엽게만 계속 해줘도 안 됩니다. 가르쳐줘야 합니다. 잘 가르쳐줘야 해요. 가르쳐주면 자기도 모르게 해져요. 그런 모습들이 멋진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들입니다. 은하수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하나님 영광 돌릴 때 들었죠. 은하수들은 은하수 나름대로 영광을 돌려야 해요. 알겠죠? 어른들은 어른들 대로, 사명

자들은 사명자들대로, 역시 화면을 보니까 보이죠. 은하수 같죠. 반
 짝반짝반짝하죠. 은하수 같이 보이죠. 저런 모습은 못 봤잖아요. 가
 만히 앉아 듣기만 하지. 그래서 반짝반짝하니까 은하수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저런 것을 보면서 중고등부도 캠퍼스도 청년부도 가
 정국도 배울 것이 있죠. 커서 저런 천진난만이 있으면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첫째,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확실히 알고, 그가 보
 낸 자를 확실히 알고 깨닫고 자기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녹
 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고 존경하고 좋아하며
 사는 삶이 어렸을 때 행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의 삶이다. 그러
 나 어렸을 때 부모들이 길을 잘못 들여놓으면 커서 참으로 힘들다.
 이렇게 말씀이 성령께서 해주셨습니다. 단상에서 또 하자고 해서 같
 이 합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은하수들 말씀 잘 듣게도 하고 잘 이
 해도 시키려면. 나무도 곡식도 어렸을 때가 운명이 좌우 돼요. 굉장
 히 좌우 됩니다. 성장성이 강하고 막 크죠. 막 큰다고 자르면 안 됩
 니다. 크는 나무는 손을 안 댔습니다. 막 크라고 나뒀습니다. 송충이
 병이 왔는데 치료했습니다. 큰 나무가 손 댈 것이 많지 작은 나무는
 손 댈 것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잔뜩 거름해줍니다. 이게 농사짓는
 최고의 비법 중에 하나입니다. 거름을 엄청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
 서 그때 어렸을 때부터 양껏 받아먹는 거예요. 어렸을 때 실컷 먹여
 야 해요. 그래야 젖살이 찌서 50살 돼서도 근육이 안 빠집니다. 아
 니면 우뚝살이든지. 그렇죠? 대화 좀 하자. 요즘에 나는 젖 먹고 컸
 어. 손들어 봐요. 은하수에 대해서는 다 젖살이네. 소 젖살이 없구
 나. 부모들이 꼭 젖살을 먹여야 해요. 젖살을 먹여야 피부병이 안 생
 겨요. 이젠 내 연구로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피부의 아토피나 있
 으면 햇빛을 보면 변질이 있을 거예요. 우리 그런 건 기도하자고요.
 우리 유초등부 중에서 피부병, 아토피 있는 사람들 손 들어봐. 50명

중에서 11명 나왔네. 나머지 채널도 있어요. 그러니 관리를 잘해줘야 한다니까. 바짝 붙어서 교사들이 눈물로 기도해주고 해야 해요. 면역성이 약하기 때문에 더 도진다니까. 지금 내가 기도해줄게. 우리 얘기하면서 하는 거야. 안타깝고 못 만나니까 내가 해주면 낫아. 많이 낫을 거야. 나머지도 계속 기도해 줄게요.

<기도>

말씀을 전하다보니 피부병이 많네요. 50명 중에 13명이면 많은 거 아니겠어요. 전체가 2600명인데 내가 비율을 따지면 300~400명이 아픈데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말하기를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건져주고 말씀해주자고 했어요. 그러니 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토피도 아니고 우유를 먹었는데도 그렇네요. 너무 약해서 일어난 요즘의 도시 매연, 공기, 먹는 거 이런 것이 많은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성령님께서 치유해주시옵소서. 교사들도 안타깝고 부모들도 안타깝게 여기니 성령님께서 치유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소서. 나도 기도해줬으면 하는 자들도 특히 피부병 환자들 건강케 해주시고 다른 곳 아픈 자들도 건강케 해주시옵소서. 이들을 기도해줍니다. 기도를 할 때는 해줬는데 이들이 실감을 못 느낍니다. 기도해주니 강건케 해주시고 치유해주시옵소서. 나까지 직접 만나 기도하니 나아지라. 아프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지장이 많으니 건강케 해주시옵소서. 치유됨을 받을 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튼튼하게 자꾸 하자고요. 너무 노여움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낫게 해주지 했겠지만 오늘 내가

기도해줬으니 너무 햇빛 많이 쬐지 말고 일반 피부병도 있고 그래요. 대둔산 사우나에서도 피부병 많이 낫았다고 하더라고. 은하수들은 뜨거운 물에 하면 안 되니까 은하수들 오면 같이 해줄테니까 어른과 달라요. 뜨끈뜨끈해도 시원하다고 하는데 안 돼요. 엄마들 데리고 와서 약한 탕에 오랫동안 담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더 잘 돌릴 수 있게 괴로움이 떠나길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 위해 기도해 줘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이제 이들이 잘 배우고 커서 중고등부 올라오는 거예요. 중고등부가 지금 어른이 되죠. 여러분들이 참으로 귀한 때입니다. 선생님도 초등학교 때 굉장히 귀한 시간 가졌어요. 하나님을 깨닫기도 하고 그때부터 철학 같은 것은 대학교나 가야 배우는 것인데 그때부터 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어떤 거 하다 죽는 것이 삶인가 생각했어요. 지금은 발달 돼서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할거야. 학교 화단에 앉아서 있었데요. 뛰어다니면서 돌아다니면 뭐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뭐지. 공부해서 뭐하지. 인생은 왜 먹고 사는가. 죽으면 끝나는 것인가. 그것이 철학이라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철학자예요. 철학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유초등부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잘 다뤄나가야 해요. 아이들이 저런 생각도 하지만 가르침 없이 스스로 공부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면서 합니다. 선생님도 어렸을 때 굉장히 중요한 기간을 보냈어요. 선생님은 14살 때 졸업했어요. 15살 때 철학공부 끝났단 말이야. 하나님 믿고 섬기면 최고구나. 9살 때 교회 다녔으니까 철학은 길 찾은 것이거든. 길 찾으면 끝난거야. 그래도 하고 싶어서 철학 공부 또 했다니까. 종교 철학이 있어요. 더 논해보는 거예요.

1~4살까지는 역시 영아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치부는 5~7살까지, 초등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입니다. 1700명 여러분들 잘 듣고 지금 듣고 있는 어린이들도 맡겨 다 알아듣습니다. 무슨 얘기한다고 알아듣고 합니다. 어렸을 때 특히 자기 특기들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대학교입니다. 유초등부입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가면 몇 과목 빼고 전문과목으로 넘어가죠. 다 배워봐야 뭐가 좋은지 아는 종합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굉장히 기대됐거든 어린이들 걸리면 어떡하지 했는데 유치원들이 걱정을 안하게 잘 했습니다. 교사들도 방역을 잘하고 그래서 누가 아기가 걸렸다는 보고는 안 들어왔어요. 걸려도 그냥 지나가더라고. 소소한 사람들이 몇 명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보고는 안 들어왔어요. 특별히 안 아프게 잘 지내왔어요. 입마개 꼭 하고 다녀야 해요. 건강하도록 해요.

여러분들 생활 자체가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무대가 되어야 합니다. 어렸을 때는 선생님 얘기 할게. 어렸을 때는 형들도 무섭고 아버지도 무섭고 소리지르면 무섭고 그리고 하고 싶은 거 있는데 그거 못하게 하면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만 했을 때 공 차고 그랬거든. 그런 거 못하게 하더라고. 이미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체육 공부 하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모르더라고. 머리가 선생인 거야. 체육 공부도 하고 다 하는데 그걸 어렸을 때는 웬만하면 다 놔둬라. 부모들이 굳어서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다 봐요. 안 볼 수가 없지. 그렇지? 주가 얘기하는데 안 볼 수가 없지. 그것을 못한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잘 뛰게 해줘야 합니다. 원숭이도 있고, 돼지도 있고, 노루도 있고, 치타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사슴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쳐다보잖아. 쥐뿔도 모르면서 말리면 안
 돼. 재능이 노력해서 바뀌는 것이 있어. 웬만하면 자유롭게 놔두죠.
 뛰어돌아다니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타가 빠르다. 사자가 독
 하다. 이런 성질들. 사자는 때를 따른다. 사슴은 평화롭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러면서 성경에 양과 염소, 이리 비유했잖아. 여러분
 들이 여러 가지인데 고집 부리고 성질 잘 내면 그건 틀림없이 뭐 같
 은가 하니 독한 짐승에 해당해요. 이런 것은 본인이 없애야 해요. 독
 한 것과 강한 것은 다릅니다. 독한 것은 말을 독하게 하고 강한 것
 은 약하지 않고 힘내서 끝까지 잘하는 거예요. 청소도 깨끗이 하고.
 강하면 독한 것은 싫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안 시켜도 알아서 하는
 거예요. 시킬 사람이 없어요. 종들은 시켜서 하고 주인은 스스로 해
 버려요.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성질 못 고
 친 게 있었어요. 성질이 좋은데 자꾸 나쁘게 하더라고. 반응을 안 보
 여주고 이렇다보니까. 상대의 말 따라 반응이 보인다는 말이야. 그거
 하다보니까 성질이 날카로워진 거예요. 여러분들 성질 날카로운 사
 람 있어요. 내가 보면 성질이 나고 화가 나. 그런 사람 손 들어봐.
 손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그런 거 없어요. 혈기 내고 분노하고
 크다보면 살인자가 된단니까. 그 사람들은 조금 성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손이 세서 죽인 게 아니고 화와 분노 때문에 죽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착하게 선하게 늘 하나님 부르면서 귀엽게 늘
 하면 그것이 엄청난 자기 앞날의 인생을 성공시키는데 굉장히 커요.
 혈기 없애면 편하다고 하잖아. 그러면서 성장을 잘하고 그러면 그것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예민하지 않고 둔감하면
 안 돼요. 무슨 말해도 그냥 둔감하다고 하거든. 예민한 것도 잘 사용
 해야 해요. 우리는 어린아이만 보지 말 것. 누가 어리게만 보지 말
 것. 이 말 깨달았나 몰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한참은 밑이에요. 깨

닫고 올라와야 해. 유초등부만 어리게 보지 말 것 깨달은 사람 손 들어봐. 말해봐. 써서 내봐. 그래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우쳐줄까? 있는 데서 찾으라고 했잖아. 있는 데서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가령 자기 이름 써봐. 너 자신을 어리게 보지 말라는 거야. 자기를 어리게 보지 말라는 거야. 자기를 어리게만 보지 말라는 말이야. 그러면 안 커요. 그래서 내가 어리다고 생각하니까 어린 취급만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어리게만 보지 말라고. 신앙인들이 전도해놓고 관리하니까 저 언니 나 좀 그만 붙잡으라고 하세요. 알겠죠? 자기가 자기를 어리게 보면 큰일난다니까. 깨달았어? 깨달을 것이 너무 많아요. 어른도 통하는 얘기에요. 중고등부도 나는 어리니까 하는데 나는 어리지 않구나. 오늘 말씀 듣고 계속 배우는거야. 중고등부만 되도록 판단해. 그래서 보는 것도 조심해야 해. 어린아이들 중에 젓 먹는 아기도 있거든. 그러니까 어리다고 해도 내가 나이가 어리지 그렇지만 생각은 어리지 않다고 하면서 본인이 성령님 말씀한 대로 어린 것이 아니다. 본인이 어리다고 하지 말아라. 상대가 어리다고 하면 내가 커버를 할 수 있어. 본인이 어리다고 하면 끝장이야. 알아들었어? 오늘 이와 같이 깨달으라.

여러분들 명지 학교 갔을 때 한 번 봤는데 그 어린이들은 커서 벌써 빠져나갔어요. 고등학생 됐겠네. 어리니까 말씀은 커서 들어라. 부모님들이 그러죠. 네가 뭘 안다고 성경을 읽고 그래. 그렇게 하는 얘기 나는 보고 안 해도 다 알아요. 거기 빠지지마. 너무 잔소리가 많아. 어린애들에게 잔소리가 많아. 그러면 안 돼. 권위있게 얘기하고 노래도 부르고 칭찬도 하자고. 제재 받으면 크지 않습니다. 놀리면 못 커요. 그래서 늘 풀어주고 얘기해주고. 이런 것들은 교정해서 바꿔줘야 해요. 여러분들 말을 안 들으면 기도해요. 선생님 이름으로 기도해

요. 그럼 하나님이 즉시 해버려요. 말하면 안 들어요. 기도해버려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말씀 읽어보고 시대 성경도 읽어보고 하고 있는데 거리 조심하고 잘 다녀요. 차 조심하고 걸어다니는 거 조심하고 계단 조심하고 조심하는 것이 뭐죠? 자기가 경호원 데리고 다니는 것과 같아요. 알겠죠?

은하수 노래 있다가 불러줄게요. 지금 불러볼까. 가만히 있자. 노래 부를게. 작게 만들었어요.